제12강 베르그송: 지속 Ⅱ

(1교시)

4. 지속은 측정할 수 있는가?

아무튼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 지속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지성의 활동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성은 시간적인 선후와 그에 따른 인과를 찾아내려 하고, 베르그송에 의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간의 표상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쩌면 베르그송이 말하는 순수 지속의 세계는 그야말로 예술적 직관이 그 속에서 생성되어 활동하는 예술적 시간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강좌 제목으로 내세운 '수직으로 선 시간을 찾아서'에서 찾고자 하는 그 시간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율에 따라 스스로를 흔들리도록 놓아둘 때의 그 선율의 계기적 음들이 그런 것처럼, 그 감각들이 서로에게 역동적으로 더해질 것이며 그들 사이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순수한 지속은 분명, 명확한 윤곽도 없고, 서로의 밖에 있으려는 어떤 경향도 없으며, 수와는 어떠한 유사성도 없이 서로에 녹아들고 서로 침투하는 질적 변화의 연속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도] 순수한 이질성일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 이 점에 관해 고집하지 않겠다. 지속에 조금이라도 동질성을 부여하면, 공간이 몰래 도입된 것임을 증명한 것으로도 충분하다."(위 책 135쪽)

그리고 "진실을 말하자면 진정한 지속은 양이 아니며, 사람들이 그것을 측정하려고 시도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공간을 대체시키는 것이다."(위 책, 137-8)라고 말합니다.

지속은 양적인 것이 아니고 따라서 측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식의 경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시계가 60번의 시계추의 진동을 통해 1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할 때, 그리고 그 시계추의 각각의 진동을 내가 의식했다고 할 때 나의 의식 역시 1분이라는 시간을 흐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베르그송의 해석은 대단히 특이하고 탁월합니다. 다소 길지만 그대로 인용하고자 합니다.

"내 밖의 공간 속에는 시계 바늘과 추의 오직 한 위치밖에는 없다. 과거의 위치들 중 어느 것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속에서는 의식적 사실들의 유기적 조직화와 상호 침투의 과정이 계속되며 그것이 진정한 지속을 이룬다. 내가 그런 방식으로 지속하기 때문에 나는 현재의 진동을 지각함과 동시에 내가 과거의 추의 진동들이라 부르는 것을 표상한다. 그런데 계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진동들을 사유하는 나를 잠시 제거해 보자. 추의 오직 한 진동, 그 추의 오직 한 위치, 결국 지속의 한 점밖에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한편 추와 그 진동을 제거해 보자. 서로에 대해 외적인 순간들도, 수와의 관계도 없는 자아의 이질적 지속 이외

www.artnstudy.com

에는 더 이상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자아 속에는 상호 외재성 없는 계기가 있으며, 자아 밖에는 계기 없는 상호 외재성이 있다. (…) 외재성 없는 계기와 계기 없는 외재성 사이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삼투압 현상이라 부르는 것과 상당히 닮은 일종의 교환이 일어난다. 우리의 의식적 삶의 계기적이지만 상호 침투하는 국면들 각각이 그와 동시적인 시계추의 진동에 대응하는 반면에 그 진동들은 하나가 나타날 때 다른 것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서로] 분명하게 구별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식적 삶의 계기적 순간들 사이에도 동일한 구별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즉, 추의 진동들은 의식적 삶을, 말하자면 서로에 대해 외재적인 부분들로 분해한다. 거기서부터 공간과 유사한 동질적인 내적 지속이라는 관념 그리고 그 순간들이 서로 침투되지 않고 이어진다는 잘못된 관념이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가 나올 때 다른 것은 사라진다는 이유에 의해서만 구별되는 추의 진동들은 이를테면 그들이 그와 같이 우리 의식적 삶에 행사하는 영향의 혜택을 받는다. 우리의 의식이 그들 전체에 대해 조직한 기억 덕분에, 그들은 보존되고 다음에는 [일렬로] 정렬된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그 진동들을 위해 우리가 동질적 시간이라고 부르는 공간의 제4차원을 창조하며, 그것은 추의 운동을 비록 제자리에서일지언정 무한히 스스로에 병치될 수 있게 한다." (위 책, 141-142쪽)

'자아 속의 상호 외재성 없는 계기'와 '자아 밖의 계기 없는 상호 외재성'을 찾아낸 베르그송의 뛰어난 논리적 상상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상호 외재성이란 말 그대로 각각이 서로 외부에 있다는 것이지요. 내 바깥에 놓여 있는 사물들은 서로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분들의 부분들도 서로 바깥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들어가면 즉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안팎을 구분할 수 없이 상호 내포와 점진적 풍요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체를 이룹니다. 자아 밖의 계기 없는 상호 외재성이란 베르그송이 공간에서 시간적인 측면을 완전히 빼버렸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본 것이지요. 계기가 있으려면 적어도 기억이 있어 앞서 있었던 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일종의 삼투압 같은 것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무엇의 핵심이냐 하면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도 상호 외재적이라 하여 공간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인 양 여기게 되고 또 그것을 양적으로 보아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습관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에 핵심입니다. 베르그송의 이야기를 순서대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① 상호 외재성밖에 없는 시계추의 각각의 위치들이 의식이 조직한 기억에 의해 일렬로 정렬된다.
② 그 결과 마치 시계의 진동들이 계기하는 것인 양 된다.(공간의 제4차원인 동질적 시간의 구성)
③ 의식의 삶의 계기들에 시계추 진동의 계기들이 대응되는 것으로 여긴다.
④ 결국 의식의 삶 역시 상호 외재적인 것으로 오인된다.

요컨대 측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간이 나오는 것은 ①-②의 과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아의 힘에 의해 객관적인 시간이 구성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시간의 성격을 이제 묘하게도 의식에 잘못 적용하게 되는 과정 즉 ③-④의 과정에 의해 의식의 시간마저 객관적인 시간의 한 형태인 양 오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왜 하필

www.artnstudy.com

이면 의식이 ③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자아의 두 측면을 논의하는 대목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일별하면 그것은 채워지지 않을 구별의 욕망에 뒤틀리고 사회적 삶의 요구와 언어의 요구에 무한히 더 잘 부응하기 위한 일종의 왜곡된 삶의 방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위 책, 164쪽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②의 동질적 시간의 구성이라는 대목입니다. 동질적 시간이란 베르그송이 보는 진정한 시간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순수 지속이 진정한 시간이고, 순수 지속이란 바로 이질성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질적 시간이 전제되지 않으면 측정이 무의미해집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이 막강했던 것은 바로 이 보편적인 동질적 시간성을 깨고 물체의 운동 속도에 따라 시간이 이질화된다는 것을 밝힌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아인슈타인에서 전제되었던 보편적인 동질성은 항구적인 빛의 일정한 측정 속도였습니다. 베르그송은 동질적 시간이 구성되는 것을 자아의 기억에 의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혹시 기억의 속도가 있다고 한다면, 기억의 속도에 따라 시간의 동질성이 달라지지는 않을는지요. 그럴 경우, 객관적 시간의 동질적 시간이란 아인슈타인처럼 철저히 기억의 속도에 상대적인 것이 되고 말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것은 ③의 과정에서 시계추와 의식이 대응될 때 그것을 동시적이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동시성은 의식이 공간화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베르그송이 동시성 개념을 싫어할 것임을 예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베르그송은 "지속과 공간이라는 그 두 항 사이의 연결선은 동시성이며, 그것은 시간의 공간과의 교차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위 책, 143쪽)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공간화의 첨병이 바로 동시성이라는 이야긴데요. 이러한 베르그송의 생각은 제논의 역설을 공격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2교시)

5. 엘레아학파의 착각 - 관념과 동시성

"엘레아학파의 착각은 일련의 불가분적이며 독자적인(자생적인 sui generis) 행위를 그 밑에 놓인 동질적 공간과 동일시한 데에서 비롯된다."(위 책, 146쪽)

베르그송의 말입니다. 우리는 제논의 역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역설 말이죠. 이를 격파하기 위해 베르그송은 일단 운동과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운동에는 구별해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는 바, 지나간 공간과 그것을 지나가는 움직임, 이어지는 위치들과 그 위치들의 종합이 그것이다. 그 요소들 중 첫 번째 것은 동질적인 양

www.artnstudy.com

이며, 두 번째 것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만 실재성을 가진다. 그것을 질이라 하든 강도라 하든 상관없다. 그러나 여기서도 삼투압 현상, 즉 운동성의 순수하게 강도의 성격을 띤 감각과 지나간 공간의 외연적 표상 사이의 섞임이 일어난다. 사실 한편으로 우리는, 사물은 나눌 수 있지만 움직임은 나눌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운동에 그것이 지나간 공간의, 가분성 자체를 귀속시킨다.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 움직임 자체를 공간에 투사하고 운동체가 지나간 선을 따라 적용시키는 데에, 한 마디로 그것을 응고시키는 데에 익숙해 있다." (위 책, 145쪽)

앞서 ①-④라 기호를 붙여 분석한 것과 동일한 과정입니다. 운동과 운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사이에 삼투압이 이루어져 운동마저 가분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본래 자아의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시간적인 것인데, 이를 공간적인 것으로 여겨 자를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 제논의 역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동시성 개념을 들어 제논의 역설을 공격하는데요. 아킬레스의 운동과 거북이의 운동 간에 동시성을 수없이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아킬레스가 P1에 있을 때 거북이는 동시에 P2에 있고, 아킬레스가 P2에 있을 때 거북이는 동시에 P3에 있고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동시성은 시간의 공간화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서로 질적으로 다른 아킬레스의 운동과 거북이의 운동을 공간화된 동질적인 시간에 놓아 역시 공간화된 동시성을 중심으로 분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깁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공간화된 시간 개념에 의하면 제논의 역설이 성립되니, 공간화되지 않은 시간 즉 순수 지속을 참다운 시간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베르그송의 입론이겠습니다.

6. 실재 지속: 자아의 두 측면

"분명히 확정된 윤곽을 가진 단어, 즉 인류의 인상들에서 안정되고 공통적이며, 따라서 비개성적인 것을 저장해 놓은 난폭한 단어는 개인적 의식의 섬세하고도 사라지기 쉬운 인상들을 말살해버리거나 또는 적어도 덮어 버린다. 대등한 무기로 싸우기 위해서는 그런 인상들이 정확한 단어들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단어들은 형성되기가 무섭게 그것들을 낳은 감각에 대항하는 쪽으로 총구를 되돌릴 것이며, 감각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각에 그들 자신의 안정성을 강요할 것이다. / 직접적 의식의 그러한 말살이 감정의 현상들에서만큼 충격적인 곳은 없다. 격렬한 사랑이나 깊은 우울증이 우리의 영혼을 침입한다. 그것은 수천의 다양한 요소들이 명확한 윤곽도 없이, 서로에 대해 외화하려는 경향은 조금도 없이, 상호 융합하고 상호 침투한 것이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그 감정들의 독창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그 혼동의 덩어리 속에서 수적 다수성을 분간해 낼 때, 그것들은 이미 왜곡된다. 우리가 그것들을 서로로부터 고립된 것으로서 동질적 장소 — 그것을 이제 시간이라 부르든 공간이라 부르든 — 에 펼쳐 놓는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169쪽)
— 근원적 감각과 지성적 언어의 완전한 대결. 베르그송의 반언어주의의 모습.

"언어의 틀을 부수면서 우리의 관념 자체를 자연적인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공간

www.artnstudy.com

의 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는 것처럼 파악한다면 [그와] 동일한 종류의 놀라움을 경험할 것이다."(170쪽)

"그 자체로 생각했을 때, 깊은 의식의 상태들은 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들은 순수한 질이다. 그것들이 하나인지 여럿인지도 말할 수 없고, 심지어 그것들을 곧바로 변질시키지 않고서는 그런 관점에서 고찰할 수조차 없는 방식으로 서로 섞여 있다."(174쪽)
– 순수 지속이지 순수 질로서의 심오한 의식의 상태들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획득해야 한다.

"채워지지 않을 구별의 욕망에 뒤틀려 의식은 실재를 상징으로 대체시키거나 또는 상징을 통해서만 실재를 본다. 이렇게 굴절되고 또 바로 그 사실 자체에 의해 재분열된 자아가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삶의 요구에 그리고 특수하게는 언어의 요구에 무한히 더 잘 부응하기 때문에, 의식은 그러한 자아를 선호하고, 근본적 자아는 점점 시야로부터 잃어버린다."(164쪽)
– 순수 지속의 파괴 내지는 은폐, 근본적 자아의 망실에 대한 이유.

www.artnstudy.com